Meritz Financial Daily

| 2024. 4. 19 (Fri)

meritz 메리츠증권
금융 Analyst 조아해
02. 6454-4870
like.cho@meritz.co.kr

News

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금리 직격탄…“3%대 주담대 금리 사라진다” 헤럴드경제 https://zrr.kr/VMIR

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(5년, AAA) 금리는 16일 기준 3.9%으로 이달 들어 일평균 1bp 가량의 빠른 상승세 시현

이는 글로벌 채권금리를 좌우하는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진 영

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 높은 인뱅…"신용점수도 더 높네" 뉴시스 https://zrr.kr/dI5X

토스뱅크의 지난달 서민금융 제외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7.03%, 신용점수는 919점으로 집계… KB국민은행의 5.42%, 907점보다 높은 수준

중저신용 대출을 늘려야 하지만 동시에 연체율 등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수익성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와 신용도 측면에서 전략적인 속도 조절을 진행하는 모습

우리금융, 증권사 인수 즉시 영업한다…'주식앱' 개발 착수 뉴스1 https://zrr.kr/9eAW

우리금융그룹이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

증권사 인수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거래 기반을 구축해 증권사 인수 직후 발빠르게 영업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

"연체채권 매각 규제 더 완화해달라"…저축銀, 당국에 요청 뉴시스 https://zrr.kr/p58N

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자영업자 · 소상공인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 채널을 기존 부실채권 전문회사에서 모든 민간 금융회사로 확대해달라고 요청

앞서 금융당국이 매각 채널을 한 차례 확대해줬으나 여전히 매각 절차에 대한 규제가 강해 속도감 있게 연체율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

금투세 대비하는 증권사…절세 셈법 복잡해 '계좌 쏠림' 우려 서울경제 https://zrr.kr/E7LI

NH투자증권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비해 텍스 센터 산하에 금투세 TF팀 가동을 준비… 삼성 · 미래에셋 · KB 등 주요 증권사들도 예의 주시하는 것은 마찬가지

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여러 계좌로 나눠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소수의 특정 증권사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에 집중

고금리·고환율에 갈 곳 잃은 자금… RP·MMF·CMA에 몰렸다 매일경제 https://zrr.kr/9TFN

증권사의 대고객 RP 매도잔액은 연초 76조 5892억원에서 이달 17일 기준 86조 7848억원으로 10조원 넘게 증가

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저위험 중수익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

생보 공세에 `+α` 역공 나선 손보 디지털타임스 https://zrr.kr/twS2

삼성화재, DB손해보험, KB손해보험, 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은 최근 건강보험, 운전자보험에 새로운 담보를 추가하며 판매 경쟁력을 높여

생명보험업계가 건강 · 간병보험 등 제3보험 상품을 확대하자 점유율 방어에 나선 것

대형 GA, 설계사 쟁탈전 과열… 상품 갈아탄 소비자 피해 속출 동아일보 https://zrr.kr/1jte

지난해 말 기준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70곳, GA 소속 설계사 수는 19만8517명으로 역대 최대치로 집계

외형 확대와 달리 내실은 제대로 다지지 못해… 지난해 대형 GA의 보험 13회차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 81.5%, 손해보험 83.2%로 전년대비 각각 2.2%p, 3.6%p 감소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